

무심코 신청한 리볼빙... 현금서비스·카드론 보다 '高利'

#.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최소 결제금액만 내면 월 결제액의 상환을 미룰 수 있다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통장 잔고가 부족해 걱정하던 A씨는 급한 마음에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결제액의 상환을 미루다보니 계속 수수료가 붙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A씨는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급히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막상 신청하고 보니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아 부담된다"며 "서비스를 신청하기 이전에 수수료 등을 꼼꼼히 살펴 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똑똑한 카드소비자

<上> 리볼빙의 빛과 그림자

신용카드 서비스는 복잡하다. 그래서 초보 금융소비자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합리적으로 돈 쓰는 '똑똑한' 카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짚어본다. <편집자주>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상환을 미루는 제도다.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사정상 나눠서 카드대금을 지불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제도다.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텔레마케팅 등 영업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월 결제액의 상환을 연기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높아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카드 결제·대금 상환 연기 서비스 과도한 사용시 소비자 부담 가중

이에 따라 과도한 리볼빙 서비스 사용은 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높여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1.48%로 전년(1.37%)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리볼빙 서비스의 장기 이용자 대다수가 저신용자이며, 금융 취약계층이 소액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서민 전용 대출 상품에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결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특성상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소득부족으로 지속적으로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NICE신용등급체계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자 중 5등급을 제외한 4~8등급의 중신용 이용고객은 줄어든 반면, 9~10등급의 저신용 이용

이후 따라 과도한 리볼빙 서비스 사용은 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높여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1.48%로 전년(1.37%)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리볼빙 서비스의 장기 이용자 대다수가 저신용자이며, 금융 취약계층이 소액대출을 위해 사용하는 서민 전용 대출 상품에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결제를 지연시킬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특성상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소득부족으로 지속적으로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NICE신용등급체계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자 중 5등급을 제외한 4~8등급의 중신용 이용고객은 줄어든 반면, 9~10등급의 저신용 이용

<분기별 수수료 등 수입비율>

(단위: 연%)

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성	대출성
롯데카드	19.28	15.96	17.97	21.16
삼성카드	19.88	14.75	15.47	19
신한카드	19.51	14.73	17.47	21.31
우리카드	19.5	16.88	16.01	20.23
하나카드	20.58	14.97	16.17	19.97
현대카드	19.61	13.12	19.48	21.93
KB국민카드	19.62	15.97	18.43	22.75

/자료=여신금융협회

객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도한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갑자기 큰 돈을 지출해야 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장 잔액이 부족한 차주가 연체의 우려 없이 카드값을 나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실효성이 크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결제액의 상환을 미루게 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붙어 상환해야 할 금

액이 불어나게 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적·계획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 이용금액 중 할부 결제금액은 리볼빙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당월 신용카드 청구서에 전월 잔액 및 일시불 결제금액의 합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적용한 금액과 해당 월의 할부 결제금액이 함께 청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리조트·차량 공유·IPO... 越·印尼는 韓 증권사 앞마당

미래에셋대우 리조트 개발 투자 단행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에서 IPO 상장
KB증권 베트남 사이공지점 오픈



서울 여의도 증권가 야경.

주요 증권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금융시장에는 신중한 투자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동남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베트남은 올해 6%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가의 메인 투자국가로 꼽히고 있다.

동남아지역 수익 확대를 위해 수 년 전부터 현지 법인을 세우고 영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증권사들은 미래 수익을 위한 규모있는 투자는 물론 현지 기업공개(IPO)도 성공하면서 수익 창출의 포문을 열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

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선 해외 시장 공략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 섬에 위치한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6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호치민 푸띠엠 지

역에 위치한 복합개발사업에 796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다양하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동남아판 우버 '그랩', 인도 차량공유업체 올라(ola)에도 투자를 집행했다. 또 인도 최대 온라인

식품판매 서비스업체인 '빅바스켓'에도 투자, 자본 5.31%를 보유하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3건의 IPO와 올해 1건의 IPO를 성공하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증권'은 인도네시아 건설사 '메타엠시'를 상장시켰다. 올해 첫 IPO 주관이다.

앞서 NH는 지난해 3건의 IPO를 성공시킨 바 있다. 6월에 골판지 제조업체 스리와하나(공모규모 100억원), 7월에는 시네르기(150억원), 8월 MD픽처스(330억원) 등 IPO를 연이어 성사시켰다.

NH투자증권은 올해도 인도네시아는 물론 베트남 시장 공략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인수합병과 투자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법인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30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최근 대졸 공채에 나선

NH투자증권은 외국어,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수자를 찾기도 했다.

이밖에 KB증권도 올 초에 베트남 회사(KBSV)를 통해 사이공지점을 열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법인을 정식 출범시켰고 한국투자증권도 2010년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세운데 이어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출범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5~6.6%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베트남 2035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8경제가 매년 7% 성장할 경우 2035년 구매력 기준(GDP)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4000달러로 한국의 2002년 수준이 된다. 또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3%로 예상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한국예탁결제원, 경쟁력 있는 LEI 적극 장려... "합리적 수수료 제공"

<법인식별기호>

KSD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LOU의 70% 수준으로 낮춰
중소·벤처기업 등에 감면 혜택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및 해외지사 기업의 법인식별기호(LEI)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LEI 서비스 관할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현재 총 1120개의 국내법인과 펀드가 LEI를 발급받았다. 예탁결제원은 해외 기관을 이용한 법인을 제외하고 전체 64.1%인 718개를 발급하고 관리 중이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하고,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콩은 4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신규거래에 대해 LEI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국은 현재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법인과 펀드의 LEI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2015년부터 LEI 발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기업들의 LEI 발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LEI 수수료를 미국과 EU 등 주요 LOU(지역운영기구) 평균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받는 발급 수수료는 건별 10만원,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을 받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LEI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국내에만 한정되었던 LEI 서비스 관할권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홍콩, 싱가포르 등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 로드쇼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 해외지사에는 LEI 발급·갱신 시 발생하는 LEI 수수료를 우리나라 LOU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

/한국예탁결제원 협찬